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

WCC ECUMENICAL MOVEMENT vs REFORMED ECUMENICAL MOVEMENT

정 두 영 목사¹⁾ 고신대학교선 교대학원 강사

들어가는 말

I. 교회연합의 원리

1. 성경적인 원리

-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연합
- (2)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연합(요 17:11-23)

2. 선교적인 원리: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연합

3. 일반적인 원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연합

II. WCC 에큐메니칼 운동

1. 에큐메니칼 운동: 선교와 연합

2. WCC 에큐메니칼 운동

3.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점

- (1) 성경관의 위기
- (2) 구원론의 위기
- (3) 교회론의 위기
- (4) 혼합주의 현상
- (5) 세속화의 정당성

III.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

1. 칼빈의 교회연합 원리

- (1) 교회분열의 죄
- (2) 칼빈의 교회연합 원리

2. 반틸의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즘

3.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

IV. 결론

참고문헌

- 1) 고신대 신학대학원(M. 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선교학전공), 고신대 대학원 선교학 전공 신학박사 수료(Th. D. cand)하였고, 현재 프라미스 키퍼스 한국총무, 미국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객원교수, 고신대 선교대학원,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강사로 사역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WCC는 한 시대에 교회 운동의 거센 바람을 몰았으며, 그 영향력은 절대 과소평가 할 수 없다.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²⁾은 교회 통합의 절차를 시작으로 하여, 성경적인 원리인 교회연합 자체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연합의 원리를 다시 되새겨보고,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올바른 개혁주의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연합의 원리는 먼저 성경적인 원리에서 출발하여,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원리, 일반적인 교회 연합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올바른 방안으로서의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하면 WCC 운동으로만 생각하고, 개혁주의 내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말하면, 무슨 이방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칼빈과 반틸을 위시한 개혁주의 교회관의 핵심은 영적인 일치이다. 개혁주의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우리의 신학 가운데 내재한 것이므로 칼빈과 반틸의 견해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은 타 교단과의 연합보다, 신앙과 신학을 같이하는 교단들과의 우선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고는 보수주의 장로 교회에 큰 관심을 갖는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 에큐메니칼 운동은 WCC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이후에는 WCC가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수식어를 붙여서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표현한다. 물론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에큐메니칼 운동," 다른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연합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면 WCC만 생각하게 되므로 "개혁/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교회연합의 원리³⁾

신학적인 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그것은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교회 연합의 원리도 먼저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교회 연합의 성경적인 원리를 먼저 고찰한 후에 선교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성경적인 원리⁴⁾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연합

H. Ridderbos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서술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였다(1975:362). 구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는 "קהל"로서 "부르다"(to call)는 의미이고, 신약에서의 용어는 "Εκκλησία"로서 "ἐκ"와 "καλέω"의 합성어인데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고 설명하였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세상에서 나온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church," "Kerk" 그리고 "Kirche"라는 말은 "Εκκλησία"라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하다"를 의미하는 "Kuriake"에서 왔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Berkhof, 1981:17). 그러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은 구약 성경의 중심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택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포괄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이며,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①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

3)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 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의하여 단순한 교회 연합의 의미와는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4) 이 주제와 관련하여 웨슬레이 L. 듀엘, "기독교의 일치: 성경적인 기초와 실제적인 발전," 『에큐메니크스』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편역(서울: 성광문화사, 1992), pp. 357-388 참조.

도 개념과 동일한 것이며, ② "그리스도 안에" 사상과 한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개념들을 순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였는데(고전 12:27; 엡 1:23, 4:12), 이 호칭은 교회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우선적인 강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연합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을 의미하며, 다른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교회의 연합에 대한 문제이다(Ladd, 1974:545).

로마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묘사를 사용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고린도 전서 12:12-31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로마서 12:4-5의 내용을 확대한 개념으로서 교회의 단일성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된 고린도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L. Welch도 그리스도의 몸의 사용은 철저하게 교회의 통일문제 때문이었다고 하였다(Welch, 1958:149). 고린도 교회는 분파 혹은 당파로 인하여 분열되어 있었다(고전 1:12). 성령의 은사가 연합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되는데 사용된 것이었다. 이처럼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에는 분열이 없다. "몸 가운데서 분열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고전 12:25),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엡 4:3-4),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만일 몸을 나누다면 몸에는 생명이 없게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교회의 소위 "유무상통"의 생활은 공동체를 주장하는 관점에서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기보다는 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일진대 인간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는 뒤에 다시 살펴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요 17:9-23)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예수 그리스도

게서는 더 이상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11),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13)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는 또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을 묘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슨 일을 이루고 싶으실 때는 자기를 위해 그 일을 대신 해줄 인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대신해야 하는 점에 위대함이 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22) 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에서 끝내지 않고 에베소서(1:22, 4:15, 5:23)와 골로새서(1:18)에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사도 바울은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와의 관계로 표현하였다(Kuiper, 1982:95).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며, 이 때 교회의 단일성은 유기적이며 교회의 유기체는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Berkhof, 1981:17).

이것은 지체 상호간의 관계보다는 몸과 머리의 관계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머리 없이 몸이 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는 없으며(Aulen, 1972:284),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은 그리스도 자신께 대하여 어떤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즉 머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와 함께 완전하게 될 수 있다(Balchin, 1979:30).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개념은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것이지 머리를 몸의 지체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Kung, 1971:239). 그러므로 교회분열을 일삼으면서 자파

교회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 그에게 복종함이 마땅하다. 교회분열의 당위성을 논할 수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우선은 하나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구주이시며(엡 5:23), 교회는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있다. 몸은 머리의 결정과 계획을 실천하는 도구이다. 몸은 머리의 대리자이다. 따라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계획이 실천되는 도구, 대리자, 무기, 기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필요불가결한 도구라는데 교회의 영광이 있다.

②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Ev Χριστῷ)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형식을 그의 편지 속에서 164회나 쓰고 있는데(Deissmann, 1957:140),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Walvoord, 1976:44).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는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는 말씀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뜻의 상징으로서 많은 지체를 지닌 몸의 일치를 말하고 있다(Fitzmyer, 1967:70).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한 몸임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있을 수 없으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므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연합(요 17:11-23)

요한복음 17:11-23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나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므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은 중대한 연합을 분열시키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악한 자의 간교한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고별설교와 그렇게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 참된 연합은 성경말씀(진리) 안에서의 일치이다.

②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18). 선교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라고 말씀하신대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③ 신자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21, 23, 선교연합).

④ 연합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21, 23, 선교연합의 목적). 예수님께서서는 신자들이 하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20-21)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23) 즉 선교연합의 목적은 ① 구세주(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고, ②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이다.

선교적인 원리: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연합

본고가 1958년 미국 연합장로회와 북장로회의 구조적이고도 기구적인 합동을 전적으로 수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합동 메시지의 제목을 "선교를 위한 연합"(In Unity for Mission)이라고 했다.⁵⁾ "우리 시대의 에큐메니칼 운

5) 사실 파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상호 경쟁적인 교파주의는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다.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연합할 필요가 있다. "선교와 에큐메니즘은 분리할 수 없다. 부흥, 선교, 기독교의 연합은

동은 19세기 선교사역의 직접적인 소산이다”(케인, 1997:219).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선교현장에서 선교를 위하여 상호협력적인 선교대회들이 열렸으며⁶⁾, 이 선교대회들을 통하여 순수한 에큐메니칼운동이 일어났다.

먼저 한국장로교회 초기 선교역사에 나타난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의 모습을 살펴보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이래 각국의 장로회 선교부는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⁷⁾, 이들은 연합정신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선교하였다. 1889년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J. H. Davis)가 한국에 온 후, 헤론(J. W. Heron)박사를 회장, 데이비스 선교사를 서기, 언더우드, 길포드(Gilford), 알렌(H. N. Allen) 선교사를 창립 위원으로 “미국 호주 연합선교회(선교사 공의회)”가 조직되었고, 1893년 1월 28일에 장로교파의 3개 선교부는 “선교부 공의회”(Council of Missions)⁸⁾를 조직하였는데, 이 회의 목적에 “우리들의 모든 對 한인 선교활동은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조직함을 목표로 함에 있다”고 하였다. 1893년 1월 공의회 1차 총회에서 남장로회 선교부는 충청, 전라도, 호주 장로회 선교부는 경상도 남부⁹⁾, 북장로회 선교부는 낙동강 이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지역을 분할하였다.¹⁰⁾

필연적인 일련의 과정이다”(Rouse & Neill, 1968:310).

- 6)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상호 협력은 1910년 에딘 버러 선교 대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들에 대해, 19세기에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상호 협력의 모험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Hogg는 자신의 논문, “19세기 에큐메니칼 선교 대회”에서 밝히고 있다. 한국 복음주의 선교 학회 편역, pp. 42-139. 또한 케인, pp. 219-233 참조.
- 7) 한국에 처음 온 각국 장로교 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장로회 신학 대학 70년사』 p. 14 참조.

년도	교 파	처 음 온 선교사
1884	미국 북장로회	H. N. Allen
1885	미국 북장로회	H. G. Underwood
1889	호주 장로회	J. Henry Davis
1892	미국 남장로회	W. C. Reynold 외 6명
1893	캐나다 장로회	W. J. Makenzie

- 8) 혹은 “선교 연합회”라고 하는데, 본래의 명칭은 “장로 교회 치리기구 준행 선교부 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s of Government)이다.
- 9) 호주 장로회 선교부는 1891년 10월에 선교를 착수하였다.
- 10) 백 낙준, 1797:210f; 민 경배, 1980b:57f; 이 영현, 1978:92. 민 교수는 이 분할이 본래 선의의 분할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한국 교회 분열의 지방적 배경과 상통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1907년에 남북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등 제 장로교회는 합동하여 단일한 한국장로교회의 독노회를 조직했으며¹¹⁾, 1909년에 독노회는 한 석지 목사를 일본 동경에 파견하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였는데, 그곳 동경의 한인교회는 서로 연합하였다(민 경배, 1980b:62). 그리고 1941년에 만주에 있던 한국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동아 기독교(침례교) 및 조선 기독교회 등 5개 교파가 외지에서 단일한 한국교회를 창설하고자 합동한 것은 실로 귀한 일이다. 이 교회는 봉화에 만주 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박 형룡, 박운선 박사가 여기에서 교수하였다.¹²⁾ 이처럼 한국장로교회 초기에 볼 수 있었던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전 호진 교수도 초기 주한 외국 선교사들의 연합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회일치는...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선교와 일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하는 필수적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어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교회인 미국 교회로부터 영적활력을 물려받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연합정신은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초기 선교사들은 교단과 국적이 달라도 하나의 장로교회, 하나의 감리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건만 지금 한국의 장로교회의 경우 무려 50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쓰라린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연합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편역, 5).

1910년 6월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는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연합을 역설한 복음적인 선교대회였고, "19세기와 20세기를 가름하는 세계교회사의 분수령"(전 호진, 1991:118)이었으며, "19세기 선교 및 연합운동의 총결산이요 20세기 선교 및 연합운동의 시발점"(김 명혁, 1991:서문)이었다. 이 선교대회가 "개신교의 조직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다"(전 호진, 1991:118). 제 1분과위원회(비기독교세계에 복

(1980a:158).

11) 이것은 1907년 대부흥 운동을 통한 좋은 유산이었다.

12) 『장로회 신학 대학 70년사』 p.122. 이 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는 김치목, 남영환, 문익환, 문동환 등이 있다.

196 고신연구 2002년

음전달)의 보고서는 범세계적인 선교를 위해 협동과 연합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¹³⁾가 창립되었고 세계복음화를 수행하는데 있어 세계교회는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초기 IMC가 세웠던 교회의 선교적 자세와 임무는 건전했으며 보다 순수하고 보다 견고한 신학적 바탕과 동시에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형태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으나(바이엘하우스, 1976:31),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 3차 WCC 총회에서 IMC와 WCC가 통합되었고, "오이쿠메네 교회"(The Church-oikoumène)와 "오이쿠메네 선교"(The Mission-oikoumène)가 통합된 후,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의 지도 하에서 선교의 진정한 영적 목표가 변질되고 말았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IMC와 WCC의 통합이 실패인 것을 공개적으로 성토했다(Glassar, 1969:131). 비록 우리가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의 입장을 비판한다고 해서 선교를 위한 진정한 교회의 연합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의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IMC의 선교를 위한 연합정신은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민 경배 교수가 Ecumenist로 본 김 린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일 조선 신자는 새 총회나 새 교단을 濫造[람조]할 때가 아니라, 백 만명 천 만명을 목표하고 전도할 때이다(김 린서, 1976:254: 『신앙생활』 1936년 11월호).

한국 보수주의 장로교회는 분열을 거듭하면서 각 교단 자체의 선교를 추진하였으나, 선교를 위한 진정한 교회연합 정신에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일반적인 원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연합

교회연합의 일반적인 원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세상의 빛

13) 1924년에 조직된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는 국제 선교회(IMC)의 가입을 준비하여, IMC 회장 모트의 내한을 주선하므로 결국 IMC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어, 1928년 3월 24일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제 2회 IMC 대회에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게 되었다.

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되므로 세상의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연합(요 17:11-23)과 연관되는 내용이다.

한국장로교회는 그동안 분열의 과정을 통하여 총회에서 문제가 생겨 분열하게 되면, 이러한 파급은 노회에 미쳐 노회에서도 분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까지 미쳐 교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총회, 노회, 교회의 재산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신학의 성격에도 기인하겠지만, 교회제도가 중앙집권적이어서 총리원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게 되고 재단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개체교회는 모두 감리교 재단에 등록되어 있고 그 교회 재산은 교회가 분열된다 하여도 분리될 수 없으므로 분열이 적은 반면에, 장로교회는 지교회로 하여금 총회 재단에 등록하도록 하지만 모두가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회 재산에 관해서는 불신사회 법정에서 전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재산 소유권 쟁탈 때문에 결국 불신법정에 소송하게 되고 총회의 신학적인, 신앙적인 문제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투쟁하고 해결하게 된다. 이로인해 이를 주목하고 있는 불신사회에 하나의 조롱거리가 되며 복음전파에 큰 장애가 되고 만다.

총회문제 혹은 노회 자체 문제로 인하여 노회가 분열하게 되면 서로 자과의 총대를 총회에 과송하게 되는데, 총회가 어느 편 총대를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일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이 되고¹⁴⁾, 총회석상에서 서로 분열되어 충돌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¹⁵⁾ 난장판이 되므로, 한국에 있어서 불교의 재산권 쟁탈에 폭력이 동원되는 것과 매일반으로 기독교도 사회에 좋은 인상을

14)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에서 모인 제 36회 총회는 개회 벽두부터 총대 자격 문제로 논란이 되다가 난장판이 되었고,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린 제 37회 총회는 12명의 경남 법통 노회 총대를 제명, 처단하고 고려 신학교 측이 제외된 경남 노회 총대가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고려측 장로 교회가 분립하게 되었으며, 1959년 9월 24일 대전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 44회 총회는 처음부터 경기 노회 총대 문제로 논란이 되어 결국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되었다.

15)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에서 열린 제 36회 총회에서는 조선 신학교측 회원의 망동으로 인해 난투가 벌어졌고, 무장 경찰의 출동제지로 총회가 해산되었다. 또한 1979년 9월에 합동측 총회가 열렸을 때에는 이 영수 목사를 중심으로 한 주류측과 정 규오 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측이 충돌하게 되어 혼란이 있었고,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기조차 했다.

주지 못하여 사회의 빛이 되지 못하고 복음전파에 큰 장애가 되고 만다.

그리고 항상 분열된 후에는 서로가 법통 총회, 법통 노회임을 주장하게 되고¹⁶⁾, 각계에서 성명서를 내게 되므로 교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분립될 당시에 대한 복장로회 선교부는 성명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모든 결정을 신앙적으로 조정하며,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다수편의 의무이고, 다수의 의사표현으로 된 총회의 결정과 그들 형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소수편의 의무이며, 소수 편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논쟁으로 항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가 타인에 의해서 해결되고자 하면 가정의 파탄이 오는 것처럼, 총회, 노회, 교회의 문제가 불신법정이나 경찰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총회, 노회, 교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총회가 양측으로 나누어져 분열하게 되면 대개가 교회분열에 동의하지 않는 중립측이 생기게 되며, 이 또한 한 개의 교단을 형성하게 된다. 적당하여도 합동측이 주류, 비주류로 분열되었을 때에, 이에 동조하지 않는 중립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란 명칭으로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나의 교회분열은 제 2, 제 3의 교회분열을 낳고 만다.

5.16 혁명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단체 등록을 요구하였는데, 종교단체도 대부분 등록하였다. 당국은 동일한 교단명칭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시하였으나, 장로교회의 제 교단들은 자신의 교단만이 유일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고집하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 1963년 8월 9일에, 합동측이 동년 9월 1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것을 필두로, 1980년 9월 30일 현재 40개의 다른 교단들이 대한예

16)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에서 개최된 고려파 제 1회 총로회는 총로회 조직의 목적을 법통 총회를 계승키 위함이라고 하였고, 1953년 6월 10일 조선 신학교 측에 가담하기 위하여 분립된 9개 노회 대표들은 한국 신학 대학 강당에 따로 모여 별도의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총회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법통 제 38회 총회임을 중외에 선포했으며, 합동측과 통합측 장로 교회가 분열된 후 통합측 장로 교회는 1960년 2월 19일에 새문안 교회에서 제 44회 총회 속회를 개최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제 44회(통합) 총회만이 75년의 전통을 이은 법통회"임을 선언했다. 석 원태 목사가 중심이 된 반고소 고려파도 교신 주류측의 불신 법정 소송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총회를 구성하고서 고려파 법통임을 주장하고, 고려신학교 복교를 선언했다.

수교장로회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문화부에 등록하였다. 이러한 많은 장로교파 들에는 주된 장로교회 분열에 따른 파급 현상으로 생긴 군소교단들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한국장로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혼란을 주게 되었다.

교계 지도자들이 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킬 때, 그들 밑에 있는 많은 양떼들은 영문도 모르고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속해야 될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적어도 한국장로교회는 소수의 교계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우왕좌왕할 수는 없다. 합동측이 분열할 즈음인 1978년 11월에 "칼빈주의 신학전지를 염원하는 총신생 일동"은 호소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신학교 복[구]설이 있으며 총회의 분열설이 있는 바 무엇 때문에 총회는 갈라져야 합니까? 불법불의한 몇 분만 제거되고 전국교회는 총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전국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호소문」 1978. 11).

교회분열 때문에 "교회가 입은 상처와 분쟁으로 인하여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조소와 빈축의 대상이 되어 교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전도의 문을 막았다."¹⁷⁾ 대개 한국장로교회가 분열된 후에 우리 사회에는 혼란이 찾아왔다. 4개의 장로교파가 분열된 후의 4.19의거, 5.16혁명이 그러하며, 고신측과 합동측 장로교회가 분열된 후의 10.26사태 등이 그러하다(정 두영, 1981년 8월 24일자).

한 교회 안에 두 장로가 서로 자기 편을 형성하여 반대편 총회에 참석하며, 한 건물에 두 교단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순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불신자들은 말한다.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교회 자체가 싸우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나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17) 서울 시내 통합측 목사, 장로 120여명으로 조직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촉진회"가 1968년 2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발췌(장 희근, 1970:401).

200 그리스도교 2002년

을 다하여야 하므로 하나되어야 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0-21)

II. WCC 에큐메니칼 운동¹⁸⁾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우주," "사람이 거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큐메네"(οἰκουμένη)에서 파생한 말이다. 신약성경에는 이 단어가 15회 사용되었다. 에큐메니칼 정신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타난다.

에큐메니칼 운동: 선교와 연합

선교문제가 에큐메니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의 선교운동이 20세기에 와서 에큐메니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선교의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연합하여야 한다. 특히 선교훈련, 선교정보 교환 등을 위해서는 함께 연합할 필요가 있다. 연합하는 방법으로는 선교사 공동훈련, 선교 정보교환, 선교회의, 선교지역 할당(Comity System) 등이 있다.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의 목적이 선교가 아닐 수도 있다. 칼빈은 천주교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루터와 연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회연합에 관해서 WCC 진영과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 진영의 입장은 다르다. WCC측은 제도적 교회의 연합을 강조한다. 선교와 연합은 동전의 양면(엡 4: : 요 17:)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복음주의는 로잔대회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협동(요 17:11-23; 엡 4:3, 4; 빌 1:27)을 강조한다. 개혁주의/복음주의는 제도적인 교회연합이 반드시 선교를 가져온다고 보지

18) 이 주제에 관하여는 전 호진, 1991:115-121 참조.

않는다. 이런 의미와 관련해서 WCC측은 교회명칭에 단수를 사용하고, 복음주의는 교회명칭에 복수를 사용한다. Robert Bank는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이란 책에서 교회는 복수라고 강조했다. 고린도전서 4:17(모든 교회), 고린도전서 10:32에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나머지는 교회들(갈 1:2; 고전 16:1, 9; 고후 8:1, 갈 1:22)로서 단일화된 지방교회라는 명칭은 성경에 없다.

WCC의 에큐메니칼운동은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운동이라기 보다는, WCC의 목적 성취를 위한 교회연합운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은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이다. 이 대회는 선교전략회의였다. 이 선교 대회는 국제선교협의회(IMC.),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생활과 사업(Life and Work)이라는 세 기구를 발족시켰다. 연합운동이 선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교리문제와 의식 및 기독교 생활에까지 확대될 것을 제창한 것이다.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생활과 사업(Life and Work) 두 기구는 2차 세계대전 때에 합병을 결의하여 1948년 WCC란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독일교회 탄압은, 교회는 세계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구체화시켜 주었다. IMC는 WCC와 별도로 존재하다가 선교는 교회의 기능으로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신학사상과 1950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사상의 등장으로 1961년 뉴델리 총회 때 WCC에 합병되고 말았다.

선교운동으로 시작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외 선교는 사라지고 정치선교로 발전하였다. 전 호진 박사는 WCC 에큐메니칼 선교를 "에큐메니칼 정치선교"(Ecumenical Political Mission)라고 했다. WCC 선교는 사회봉사를 앞세우는 신학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WCC의 토의 내용이 UN의 토의 내용과 비슷할 정도였다. 그래서 1968년 제 4차 읍살라 총회를 방문했던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은 WCC의 토의내용이 UN의 토의내용과 같으므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202 구약연구 2002년

타이노넨(Teinonen)은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받은 사회질서'(redeemed social order)로 생각하는 시도"라고 했다. 선교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에 대한 교통정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정치화된 선교신학이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

1960년 WCC는 개인구원보다 사회구원을 앞세우는 해방신학이 WCC의 공식적인 선교신학이 되었다. 사회정의 등을 선교과제로 삼을 때 기존 사회와 정치체제와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등지에서 선교사 비자발급에 대해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정치화된 선교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이다.

복음주의(개혁주의)와 WCC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의 관심대상은 각각 다르다. 복음주의(개혁주의) 선교운동의 관심대상은 "대 사명"(Great Commission, 마 28:18-20)에 근거해서 복음화 되지 않은 사람(unreached people)이다. 이와 달리 WCC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의 관심대상은 "대 명령"(Great Commendment, 눅 4:18)에 근거해서 비 특권층, 소외당한 자들(under-privileged people)이다.

복음주의/개혁주의의 관심: 대사명(마 28:18-20)	WCC의 관심: 대계명(눅 4:18-19)
권세	성령
제자삼기-가서 세례주고 가르치는 것	보내심-포로의 자유 전파 -눈먼 자의 치유 전파 -눌린 자의 자유 전파 -주의 은혜의 해 전파

마태복음의 "너희"와 누가복음의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권세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다.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것은 제자 삼는 것이다. ① 가는 것 ② 세례를 주는 것 ③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모두 제자삼기 위해서이다.

누가복음에서 강조된 것은 보내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

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보내신 이유는 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②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③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④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모두가 복음전파와 관계된 것이다. 포로의 자유, 눈먼 자의 치유, 눌린 자의 자유 등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것들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다.

선교의 목적, 과제, 주제를 잘 알아야 한다. 선교문제는 빵의 문제, 가난의 문제, 구조의 문제 등과 많이 직면하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영적인 승리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를 기념한 행위는 귀한 것이라고 칭찬하셨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점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점은 주로 교회론과 기독교론에 관련되어 있다.

성경관의 위기

성경관의 위기이다. 성경영감을 부정하고 성경을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구원론의 위기

구원론의 위기이다. 만인구원론(롬 5:12 이하)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구원보다 사회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신학에서 힌트를 얻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보편주의적인 구원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서 구속받을 자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일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투쟁 없이 피 흘렸다고 하므로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

교회론의 위기

교회론의 위기이다. 호켄다익은 부흥운동과 종교개혁과 선교운동의 시대에

교회는 기독교론[구원론]과 종말론에 몰두했으나 교회론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Clowney, 1976:1). 그런데 WCC는 교회론에 집중하였다.¹⁹⁾ 뉴 비긴(J. E. Leslie New-bigin)은 "우리는 세세계에 돌입했다. 전통적인 기독교국(Christendom)의 붕괴, 교회의 선교적 경험, 에큐메니칼운동의 대두는 교회론이 신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했다"(Paul, 1972:169)고 했다. Robert S. Paul은 18C 합리주의, 19C 낭만주의, 20C 자유주의 그늘 밑에 가리웠던 교회론의 재발견은 교회의 가능성을 위한 큰 기쁨이라고 하였다(1972:166).

WCC는 보수주의보다 교회론에 있어서 앞서갔다.

...교회론의 연구는 교회의 세상에 대한 사명강조와 선교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보수신학보다 에큐메니칼운동은 교회론을 발전시켰다. 현재 WCC적 에큐메니칼운동의 교회관은 선교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보수주의 신학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보다, 교회의 본질을 더 중시, 교회의 정통성과 교회의 순수성(Church purity)에 더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교신학의 주도권을 자유주의에 빼앗겨 버린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의 WCC 에큐메니칼운동은 교회의 본질보다는 사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목회와 선교를 발전시켰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일어난 교회론의 관심은 정적인 교회관에서 세상을 향하여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동적인 교회관이다.²⁰⁾

전 호진 교수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론을 교회갱신²¹⁾, 교회의 사

19) 교회에 대한 관심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 뿐만 아니라, 교회성장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맥가브란은 선교기지 접근 선교방법을 비판하고 교회설립에 주력하는 선교이론을 발전시켰다. WCC가 교회성장학과에게 포화를 쏘대는 이유는 WCC의 교회의 다양성 개념 대 교회성장학의 동질집단 이론 등이다. 벤 엔젠(Charles Van Engen) 교수는 교회성장학을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참교회"(True Church)에 관한 박사논문(*The Growth of the True Church*)을 썼다.

20) 전 호진, 1979:49; WCC 에큐메니칼운동은 자신의 목적성취를 위하여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의 사명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What to do)보다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존재(What to be)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교회관에서 "What to do"를, 선교관에서 "What to be"를 다루었다.

Van Engen 교수는 자신의 박사논문,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에서, 교회성장학과의 단순한 교회성장만을 선교라고 보지 않고, 참 교회의 성장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참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오늘날 붐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건강한 교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새들백 교회의 릭 위렌 목사는 건강한 교회 개념을 역설하고 있으며, 셀교회도 건강한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다.

21)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제도적 교회

회성 강조²²⁾,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정치화²³⁾ 등으로 보았다(1979:49-59).

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교회갱신(Church Renewal)을 주장하였다. 개혁주의적인 교회관도 지상에서의 절대무오한 교회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과거에 개혁되었고, [그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Reformata ecclesia semper reformanda/ecclesia reformanda, quia reformata)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은 교회생활에서의 개혁이지 교회구조의 개혁은 아니었다. 그러나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구조의 갱신(개혁이 아닌)을 주장 하였다.

전 호진 교수는 교회갱신의 요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1979:50-53). ① 성경해석학의 발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교회관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② 교회의 외적 상황이 교회갱신을 요구케 하였다. ③ 교회간의 일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교회갱신이 거론되었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구조적인 교회의 다원성(Multiplicity)과 다양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 구조적인 교회들이 구조적으로 획일화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WCC의 교회갱신은 영적인 교회의 성숙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 22)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를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고,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교회의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교회"가 강조되었다. 교회란 말은 "Community"(공동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교회는 사회적 공동체"(이장식, 1974:36)가 되었다. 기독교의 사회적인 면이 그동안 강조되었고 신국을 사회운동의 종착점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교회가 크리스천의 공동체이며 크리스천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이장식, 1974:35). 이렇게 교회의 사회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새 교회론은 과정이라는 범주로 발전되었다. 교회는 존재(being)가 아닌 형성(becoming)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교회의 존재나 본질을 정의하기 보다는 교회의 기능과 목회를 강조하게 되었다"(Clowney, p. 9).

개혁주의의 교회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룩한 나라"(벤전 2:9)를 교회의 본질로 보는데 반해, 1975년 WCC 나이로비 대회는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거의 무시하고 사회속에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Paton, ed., 1976:79 참고).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계속해서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개인적 회심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와 국내외적으로 교회중심적인 기독교 확장의 강조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사회복음"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운동의 초창기 인물은, 『실천적 기독교』(Applied Christianity)와 『기독교와 사회주의』(Christianity and Socialism)의 저자인, 월터 라우웬부쉬(Walter Rauschenbush; 1861-1918)와 해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 1878-1970)이다.

비셀 후프트의 논문인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Gospel*은 사회복음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잘 설명했다. 여기에서 사회복음의 발단이 된 요소로서, 계몽주의, 사회과학의 발전(윌리엄 제임스와 존 듀이), 부흥주의, 청교도주의, 정착 당시부터 사회적 문제와 씨름하며 소규모 공동체들을 건설하는 문제들에 맞부딪혔던 미국 개척자들의 전통 등을 들고 있다. 사회복음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 속에서 실재화시키는 것이다. 요하네스 베르카일 박사는 사회적인 죄악을 지적한 사회복음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평가했다(베르카일, 1996:302f 참조).

- 23) 세상과 사회에 대한 관심, 나아가서 책임을 등에 진 교회와 신학의 세속화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정치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호켄다이크는 교회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전위대(God's

교회가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영적공동체라고 하기 보다는 단순한 공동체이다. 봉사가 선교를 흡수하여 선교부재의 교회관으로 변질되었다. 교회의 사회학적 요소를 강조하여 세상을 위한 교회를 주장한다. 또한 행동주의를 강조하여 "교회는 무엇이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를 강조하나, 이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신자의 사회적 역할과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세속주의적이고 기능적인 교회관은 선지자로서의 교회라는 교회의 비판적 기능을 역설하여 사회문제에 대하여 예리한 비판은 가하나 자체의 거룩성은 무시하고 있다.

칼 헨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순을에 대해서 "기구화 된 교회는 사회구원자로서 자처하여 공적문제에 끊임없이 간여하는 반면 자체의 생활에 있어서는 거룩을 무시하며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했다.

혼합주의 현상

혼합주의 현상이다. 타종교와 세상에 대해 문을 열고 대화를 하다보니 본질을 잃어버리는 혼합주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avant-garde)로 보았다. 영혼구원이라는 교회의 구속적인 기능보다는, 사회구원을 위한 과격한 행동주의 양상을 띤 해방신학이 등장하였다. 남미에서 나타난 해방신학은 1975년 나이로비 대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위 정치신학이 1970년대 교회를 지배하였다.¹⁾

교회의 정치적 기능을 중시하므로 마스주의로부터 사상과 언어를 차용하고, 공산주의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나이로비 총회는 교회가 "사회에서 평화, 정의,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Paton, p. 43)고 하므로 교회의 정치적인 기능을 역설하였다. 나이로비 총회는 누가복음 4:18-19의 말씀에서 영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강조하였다 (Paton, p. 101 참조).

해방신학은 성경해석학에서 상황적 해석학(Situational Hermenutics)을 시도하는데, 몰트만은 정치적 해석학이라고 했다(몰트만, 1970:169f 참조). 이러한 교회의 정치화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의 폭력사용도 서슴치 않았다. 몰트만은 "진리는 혁명적"(Kee, ed., 1974:51)이라고 하였다. Stephen Neill도 WCC 중앙위원 가운데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폭력사용을 권장하는 지도자가 있음을 긍정하였다(Stephen Neill, 1978:319). Jack Ellul은 신령한 폭력(Spiritual Violence)을 긍정했으며, 몰트만은 눌린 자와 억눌린 자로 양극화된 혁명적인 이 시대에서는 교회는 항상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제 3의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이 수단으로 무조건 배제될 것이 아니라, 정당화된 폭력과 비정당화된 폭력으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했다(Kee, ed., 1974:56-57 참조).

세속화의 정당화

세속화의 정당화이다. 1960년대에 교회의 세속화가 주장되었다. "세속주의"라는 용어는 1851년에 George J. Holyoake가 만들었는데, 1세기 후에는 이것이 종교, 문화, 사회분야에서 가장 혁명적인 단어가 되리라고 예견했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에서 교회의 세속화를 설명했으나, 그 이전에 이미 본 웨퍼는 『성숙한 세계』(eine mundige welt)에서 "종교없는 기독교"와 "세상을 위한 기독교"를 역설하였다.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할 때만이 교회라고 하였다. 본웨퍼의 타자를 위한 교회는 1966년 WCC의 교회와 사회 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채택되었으며, 1968년 옹살라 대회的主제가 되었다(윌리엄스, 1973:13 참조).

해방신학자 메츠(Johannes Metz)는 세속성은 기독교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세속성을 통해서만 기독교가 역사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다(Gundry & Johnson, 1976:226).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거절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세속화 할 것을 주장한다. 세속화 신학의 출발점은 기독교론이다. 보수주의가 고난의 메시아 관점에서 기독교론을 발전시킨다면, 본 웨퍼 등 자유주의 사상은 예수의 도성인신과 주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세상의 머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라면 교회와 세상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와 세상의 결속을 강조한다. 1954년 WCC 에 반스톤 회의에서는 "교회와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란 주제를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바꾸었고, 1961년 뉴델리 회의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란 말을 제거했다. 세속신학의 주장들은 개혁주의적인 교회관을 도파적이라고 한다(Gundry & Johnson, 1976:4f).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지 못한데 있다. 교회란, 세상이라는 큰 원 속에 있고, 하나의 작은 원에 불과하므로 성속의 분리는 비합리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속화에 대해 나인홀드 니버는 반대의 입장을 표시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지나치게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간성, 국가, 부, 산업자체는 선

도 악도 아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주의"(ism)가 될 때는 우상이 되는데, 교회는 늘 이러한 우상과 과도한 동일화를 이루므로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위기는 세상에 있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의 위기이다. 교회는 너무나 밀접하게 자본주의, 개인주의 철학, 서구의 제국주의²⁴⁾와 동일시 해 왔다. 세상기관이 다루는 내용과 교회연합기관이 다루는 내용이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에큐메네"(사람이 거하는 세계), 즉 세상으로 나아가는 운동이고, 교회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므로, ① 순수한 교회연합이 아니고, ② 교회를 갱신, 사회화, 세속화, 정치화 하므로,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 세상을 위한 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므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본고가 말하는 교회연합은 아니다.

Ⅲ.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

칼빈의 교회연합 원리

칼빈은 교회를 "가장 훌륭한 극장"(Speciosum Theatrum Maxime)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의의 증거를 보여 주신다(Calvin 1949:334f). 칼빈은 "교회라는 명칭은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무리를 지칭한다"²⁵⁾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 안으로 자녀들을 불러모으시고 교회는 그들을 양육하며 모성애와 같은 배려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Institutes, IV, i.1)라고 했다.

여기에서 교회분열의 죄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칼빈의 교회연합 원리를 살

24) 서구의 제국주의 선교에 관한 역작은 Johannes Van Den Berg의 박사논문으로서 "Constrained by Jesus' Love" (Doctoral Dissertation, Theologische Hogeschool and the Johannes Calvijn Academie at Kampen, 1956)이다.

25)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i.7. 이후에는 "Institutes"라고 함.

펴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칼빈주의가 교회분열주의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개혁주의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모색하고자 함 때문이다.

교회분열의 죄

칼빈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자 하였다.²⁶⁾ 칼빈은 분명하게 교회분열을 죄로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제 4권 4장에서 "교회가 다소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면서 교회분열의 죄를 지적하였고, 제 5장에서는 "교회가 다소 거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여 분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악마적 영혼들은 항상 그 하나됨을 분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교회일치를 깨트리려는 행위를 칼빈은 "마귀적"이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Institutes*, IV. i. 9). 칼빈은 교회에서 함부로 분리되는 것을 "배교"라고까지 비난한다. "주님은 자기 교회의 교통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거만하게 떠나는 것을 기독교에 대한 배신이요 배교로 여기신다"고 했다(*Institutes*, IV. i. 10).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믿었다. 칼빈에 의하면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를 순수히 집행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단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충분한 보장이요 보증"이었다(*Institutes*, IV. i. 12). 칼빈은 두 가지 점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다른 이유 때문에 분열할 수 없으며, 둘째는 소수의 악덕이나 대다수 사람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Institutes*, IV. i. 19). "죄의 용서야말로 교회의 결정적인 특징"(*Institutes*,

26)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해서 칼빈주의가 교회분리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개혁을 원했지 분리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한국 장로교회는 현재 150여 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교회연합에 대한 견해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IV. i.20)이라고 본 것이다.

교회의 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경솔하게 교회를 떠나서는 안된다. 고린도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살펴보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범한 죄악의 종류는 많았다. 그 부패상이 자신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분쟁, 분파, 질투, 싸움, 재판소동, 탐욕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인정하며 선언하였다(고전 1:2)(*Institutes*, IV. i.14).

칼빈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를 실례로 들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불신앙이 만연해 있던 방종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셨다. 이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Institutes*, IV. i.19).

칼빈에 의하면 교회에는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뒤섞여 있다." 교회는 그물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 고기나 다 잡은 후 해변에 풀어 놓고서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 낸다. 교회는 씨를 뿌린 밭에 비유할 수 있다. 마귀가 그 밭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만 추수 때에 가라지는 제거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최후 심판날까지 이러한 악들 밑에서 고생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칼빈은 "아무 흠이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수고"라고 주장했다(*Institutes*, IV. i.14).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분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Institutes*, IV. i.15). 어거스틴이 조언한대로 "할 수 있는대로 긍휼로써 훈계하며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참고 사랑으로써 이웃의 잘못을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바로 잡으시며, 혹은 수확시에 가라지를 뽑으시며 또 쭉정이를 가려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²⁷⁾(마 13:40, 3:12; 눅 23:17). 상황에 따라 우리가 교회분열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구절 "거룩한 공회

27) Augustine, *Against the Letter of Parmenianus*, III. i.1; III,ii.15.

를 믿사오며..."(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는 의미가 없게 된다.

칼빈의 교회연합 원리

우리가 머리와 마음으로만 교회를 이해하고 젖붙임을 받은 교회의 단일성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으면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를 "공동적" 또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나누어지지 않는 한 여러 개의 교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Institutes*, IV, i.3).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이 되며 한 성령 안에 거하라"(엡 4:49)고 권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결국 형제 사랑으로 연합할 수 밖에 없다"(*Institutes*, IV, i.3)고 칼빈은 말한다. 즉 그가 말하는 연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리스도가 핵심을 이루는 신앙의 기본원리에 일치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분리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교리적인 차이이다. 결국 칼빈의 교회연합 조건은 동일한 신앙고백, 즉 믿음의 일치였다.²⁸⁾

그런데 칼빈은 심지어 교리상의 차이조차도 항상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모든 교리가 다 동일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의 보루"(citadel of religion)라고 부를 수 있는 교리들이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

28) 한국 장로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분리되어 있다. 하나는 에큐메니칼운동을 지지하는 기장측과 통합측이고, 다른 부류는 에큐메니칼운동을 반대하는 고신측과 합동측이다. 그런데 같은 부류는 동일한 신앙고백을 채택하면서도 한 부류 안에서 여러 교파로 세분되어 있다. 이는 장로교회의 시조인 칼빈의 에큐메니칼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며, 교리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근삼 박사는 "한국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정착화"라는 논문에서 장로교 신앙고백 안에서의 일치를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성경대로] 살고 그대로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간추려 놓은 것으로 역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와 신앙경험에서 고백한 신조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장로교회의 일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논문집』 제 7집(고신대학교, 1979), pp. 44-45].

212 그리스도교 2002년

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등의 교리가 그러한 것들이었다. 이런 핵심교리가 부정당하면 "목구멍이 꿰뚫리고 심장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는 "틀림없이 죽는다." 이런 것들은 "필수적 교리의 요약"(the sum of necessary doctrine)이요 본질적인 것들이므로 모두가 이의 없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된 교리가 아닌 사소한 오류들은 용서되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문제들, 지엽적인 교리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갈라 나가서는 안된다. 인간은 모두가 조금씩은 다 무지로 인해 "마음에 구름이 끼여"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전체에 문제가 되지 않고,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Institutes*, IV. i.12; IV. i i.1).

신앙의 기본원리를 양심적으로 고백한다면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교회연합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Reid 1948:37). 이처럼 칼빈은 교회연합에 대해 열정을 가졌다. 칼빈은 독일의 교회개혁자들이 교제와 연합이 없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볼링거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우리 사이에 형제적 우애를 유지하고 보증하는 것 이상 더 관심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참 화합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의 문제이다...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신앙으로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참 목사들과 연합과 우정을 유지해야 한다....나로서는 이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McNeil and Nichols 1947:17).

반틸은 칼빈의 교회연합에 대한 열정에 대해, "칼빈은 성경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라면 대양을 일곱 번이라도 건넌 것이다"(반틸 1992:458)고 표현했다. 독일의 신학자 로처(G. W. Locher)는 칼빈을 에큐메니칼 인물, 에큐메니칼 사상가, 에큐메니칼 조직가로 말하였다(Locher 1960:8). 결국 홍 치모 교수가 말한대로 개혁자 칼빈은 분명히 성경적인 Ecumenist였다(홍 치모 30).

반틸의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즘

반틸은 개혁주의적 Ecumenist이다. 그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큐메니즘과의 만남을 벗어날 수 없다"²⁹⁾고 했다. 반틸은 에큐메니즘의 근거를 아브라함까지 소급하여(창 17:4), 세계교회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Ecumenicity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장막과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경배하는 무리들[계 7:9] 사이에 일어났던 바와 일어날 사실을 담고 있다"(p. 447)고 했다.

반틸은 그런데 계시록 7:9의 많은 무리들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반문한다. 모여든 무리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의 에큐메니즘이다. 에큐메니칼 교회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었던 것처럼 이삭의 장막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p. 449),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7-8; 창 21:12 참조)고 하셨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중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온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될 언약 준수자들(Covenant-keepers)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The Remnant)인 것이다"(p. 451).

비록 그들의 몸에 언약의 표(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약에 참여한 외적인 징표를 가졌다는 것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p. 454).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운 에큐메니즘은 [복음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타주의적인 것이고 따라서 파당적인 것이다"(p. 454). "비성경적 에큐메니즘은 '인간적 공로(merit)에 의한 구원'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공적에 의한 구원을 근거로 한 교회는 필연적으로 '은혜로만 말미암는 구원'을 공언하는 자들을 배제시키게 된다"(p. 455).

현대주의 에큐메니즘은 비성경적 포괄의 원칙과 비성경적 배제의 원칙

29) 반틸 446. 이하 본문에 나오는 페이지는 이 책을 말함.

(non-biblical principle of exclusion) 모두를 가진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흔히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됨(unity in the Truth)만을 기원하셨다는 것을 잊는 경향이 있다"(pp. 460-461)고 했다.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먼저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의 통일을, 그 뒤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 모든 종교적 신념들로 하여금 '불타'나 '그리스도'가 그 확신이 되는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공통의 이상(common ideal)을 향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p. 465)고 했다.

현대주의 에큐메니즘에 대해, 반틸은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믿는 자만이 에큐메니칼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p. 450). "성경의 그리스도(Christ of Scriptures)께서는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을 일으켜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사역을 계속하셨다"(p. 458). 반틸은 비성경적인 포괄주의로 인해 "주의 만찬"이 더럽혀져서는 안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한다. 바로 이것을 에큐메니즘에 대한 개신교적인 입장. "역사적 개신교의 에큐메니즘관"(the historical Protestant view of ecumenism)이라고 했다(p. 458).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동체에 두었으나, 중세 로마교회는 제도적인 일치를 확립하게 되었으므로 제도적 분열은 공동체의 연합의 파괴로 간주될 수 밖에 없었지만, 개혁자들은 제도적인 일치 대신에 복음적인 교리와 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택하였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게 되므로 "19세기가 선교의 시대라면 20세기는 에큐메니칼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연합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전 호진,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편역 5).

한국 보수주의 장로교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WCC의 에큐메니칼 원리를 비판하기에만 급급하므로 자체의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원리를 제시하고 실천하기에 부족했다. 본고는 몇가지 점에서 WCC의 에큐메니칼 원리를 살펴보

면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³⁰⁾

①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됨"의 문제이다. WCC는 암스텔담에서 처음 모였을 때 "하나의 세계, 하나의 교회"(One World One Church)를 모토로 내세웠다. 에큐메니칼주의자³¹⁾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교회들(Churches)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A Church)를 세우려고 오셨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이것들'이 아님]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말씀하셨다고 한다(Miller 1982:214).

그들은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제 차이점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보고 교리, 예배의식, 그리고 조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머물러 있기"를 결심하면서, WCC는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한, 그리고 비록 아득히 멀리서 일지라도 "저희가 하나되게 하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위한 노력이라고 하였다(Miller 1982:230).

혹자는 WCC의 현재 위치를 교회의 연합(Unity)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은 머리고 발은 교회의 하나됨(Oneness)이며 "교회의 하나됨"에서 "세상의 하나됨"으로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교제보다는 세상 백성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 태도이지 WCC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하나됨은 아닌 것이다.

② 둘째는, 이와 비슷한 "대연합"이나, 아니면 "소분열"³²⁾이나 하는 문제이다. R. B. Kuyper가 지적한대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는 "대연합"주의자들의 배후에는 교파들 간의 교리적인 차이는 관계가 없다. 이들의 가장 현저한

30) WCC적 에큐메니칼 원리를 학적으로 다룬 책은 존 매카이의 『에큐메니즘』 [민경배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이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선교학회에서 복음적인 에큐메니칼 이론들을 모아서 편역한 책은 『에큐메니즘』 이다. 이 책은 이하 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치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31) 이후부터 "에큐메니칼주의자"란 WCC의 에큐메니칼 원리를 주장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32) "대연합," "소분열"이라는 말은 윌트니스 리가 자신의 책에서 한 말 [『성경에 나타난 교회』 왕 중생 역(서울: 한국복음서원, 1978), pp. 71-74].

특징 중의 하나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며, 진리는 교회가 유기적 통일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어떠한 가치보다도 큰 것인데,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유기적 통일만을 얻는다면 진리 자체는 곧 파괴되고 말 것이고 교회의 영적 통일도 파괴될 것이며(Kuiper 49ff), 우선적인 연합을 내세우므로 교파 자체의 고유성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한 편은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일일 뿐이지 유기적인 통일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분열"주의자들은 이견이나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분열하려고 하므로 교회분열을 일종의 취미로 생각하고 있다.³³⁾ 우리는 "대연합"도 "소분열"도 반대한다. 우리의 연합은 단순한 친구들의 연합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의 형제들과는 계속해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형제들의 연합이다.

③ 셋째는, 내적이고 영적인 연합이나 아니면 외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이나 하는 것이다. Donald G. Miller는 아래와 같이 영적인 하나됨은 분열을 위한 구실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첫째로, 한 몸의 통일이 그의 가시적인 조직보다는 오히려 이것에 생명력을 주는 하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서, 만일 그들이 서로가 이탈되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의 생명이 모든 지체들을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 성서는 영적인 실재를 취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체적이다. 그것은 육체로부터 떠난 영혼들을 믿지 않는다. 지체를 가시적인 방식으로 체계화하려 하지 않는 영적인 하나됨(통일)의 모양을 믿을 수 있는 '감령설'은 성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만일 교회가 영적인 면으로 하나라면, 교회 생명의 구체적, 가시적인 실재에 있어서의 그 통일의 부족은 교회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구체책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다(Miller 223f).

그러나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Communio Santorum)³⁴⁾이며, 영적인 통일은 통일의 부족을 느끼게

33) "폐쇄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교회의 일치운동을 사탄적인 배교운동으로 보기까지 한다. 반면에 교회 일치를 지나치게 앞세워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있다"(송 용조 박사의 글).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편역, p. 7.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통일을 실현하게 된다. 박 윤선 박사도 "우리의 교회"라는 논문에서 영적 연합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과 같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곧 우리는 외부적 통일 보다는 영적 통일을 위주하는 개혁과 신학의 원리대로 우리는 영적 통일있는 교회를 믿는다. 영적 통일이라는 것은, 참되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자들로서의 사귄으로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세례에 일치하게 됨을 이룸이다.

결국 성경적, 영적 교회연합의 의미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연합이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들을 불러내어 모여지게 한 신령한 연합이다.³⁵⁾

④ 넷째는, 우선권의 문제이다. 이것은 교리가 앞서느냐 교제가 앞서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민 경배 교수의 "민족교회사"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자유주의 신학조류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토착화신학³⁶⁾이 거론되었다. 그 이론을 한국교회사 역사 기술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람은 민 경배 교수인데³⁷⁾, 그의 작품은 『한국기독교회사』였고 그의 한국교회사관은 "민족교회사"였으며 그 개념은 한국교회사를 성경과의 교섭에서가 아니라 민족사와의 교섭에서 파악하려는 주체적인 서술이었다(P. 5, 18-20).

교회와 민족과의 결합관계에서 불려고 하므로 민족과 교회가 일치되지 않는 요소는 분립파로 보는 점,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정통성보다 강조하므로 교회 내의 정당한 개혁을 위한 분열도 분파운동으로 보는 점, 에큐메니칼적 교회

34) 종교개혁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통"(Communio Santorum)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우선으로 삼았다.

35) 박 종철, "고려파의 정신사," 『이 근삼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1984), p. 161.

36) 김 양선 교수는 한신대학교측이 내세우는 한국의 주권적 신학형성을 한국적 신학의 수립으로 보고 있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66), p. 173.], 손 봉호 교수는 "민중신학이 신학이며 한국적인가"라는 논문에서 "민중신학을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의 한국적 수용"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에 나오는 민 경배 교수는 한국교회를 주체로 해서 한국교회사 서술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신학방법은 토착화 신학의 단면들이다.

37) 박 종철, "고려파 태동의 바른 이해-민 경배, 김 영재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신대학보』 제 88호, 1984. 5. 28.

라는 구호 아래 교회성이 아니라 세계성을 내세우므로 교회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바로 교회의 문제"(P. 16)라는 점 등은 의도가 너무 깔려있는 주장들이다.³⁸⁾

그가 이해하는 교회의 본질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데 그 적용이 문제이다. "교회는 경건이나 정통에 앞서서 그 유일하고도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적 연결을 기본적인 목표로 본다....교회를 나누어 나갈 정도의 진리의 보수나 실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pp. 15f)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은 "교회의 통일은 정통에 선행한다"(p. 16)³⁹⁾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큐메니칼주의자도 교리적 통일을 중시하는 것보다 조직적 통일에 더 치중하고 있다.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제 3차 WCC 총회 보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이 건전한 교리보다 앞서야 한다"(Visser't Hooft, ed. 1962:126)고 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원리는 결코 연합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행 2:24)는 말씀에는 교제의 순서가 교리 다음에 온다. 연합을 위해서 교리를 도외시키고 또 과소평가하는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외적인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을 이루는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정 두영 1981).

⑤ 다섯째는, 새로운 연합이나 아니면 연합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은 새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진 하나됨을 지속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

38) 민 경배 교수 뿐만 아니라 WCC에 동조하는 신학자들의 경향이 다 그러하다. 이 형기 교수도 에큐메니칼운동의 역사를 쓴 『에큐메니칼 운동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에서, 오직 교회일치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교회일치를 붕괴시키는데에 큰 몫을 했다"(p. 32)는 식으로 표현했다. 이는 이미 살펴본대로 중세 로마교회가 제도적 분열은 공동체 연합의 파괴로 간주한 것과,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을 분리주의자로 몰아 세우는 것과 같다.

39) 그는 부연해서 "선교론이나 교회사의 연구를 통해서 교회일치의 요청이 정통과 순수의 보존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민 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p. 104)라고 하였다 [민 경배,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그 이후의 정통 이단의 문제," 『김성식 박사 회갑기념논문집』(서울: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8); 이 장식, "교파제도의 공죄," 『기독교사상』, 1963년 11월호 참조].

써 지키라”(엡 4:3)고 하므로 성격상 이미 가진 하나됨을 지속하라고 하였다. 계속 연결되는 ”몸이 하나이요”(엡 4:4)라는 것은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던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올바른 교리를 토대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연합을 이룬 후에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루어진 연합을 지속하며 동일한 신앙과 교리의 범위 내에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어떤 기독교의 모임이나 단체, 그리고 교파에 속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순수한 마음은 바로 순수한 에큐메니칼 정신(Ecumenical Spirit)이라고 할 수 있다(Marty 1964:14).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궤도를 수정하여 진정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여야 할 때가 왔다.

박 종철 교수는 ”고려과는 진리 안에서 교회의 영적 통일을 목표로한...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하였다”(1984:160)고 말하면서 다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고신은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교제, 동역하였다. 그 예가 한 부선 선교사(Rev. Bruce F. Hunt)이다. 1949년 9월 경남노회 제 49회 임시노회는 고신이 한 부선 선교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으로 고려신학교 인가 취소 결정을 하였고, 그 해 제 35회 총회가 ”교회는 한 부선 일파의 선교사와 관계하지 말고...”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역하게 된 것은 ”진리 안에서만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대단위 개념이 우리의[고신의] 신앙운동에 있었기 때문이다”(박 종철 1984:164). 한부선 선교사는 고신과 함께 남아 공동으로 진리 증거에 분투하였으므로 고신과 한 부선 선교사는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신앙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니, 이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의 신실한 진리연합운동이었다(박 종철 1984:164f). 우리는 과거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상처를 씻고 이제는 진정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여야 한다.

결 론

교회연합의 필연성은 성경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연합이며, 현재의 분열을 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그것을 영속시키려고 추구하는 것이나 혹은 고의적으로 새로운 분파의 발생을 조장하는 일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는 나뉘어 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도 분열되어 있을 수 없다(Miller 220).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연합이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연합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기도에서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다.

선교적인 원리는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인데, 한국교회 초기 주한 외국 선교사들이 시도했던 교회연합의 노력은 좋은 결실을 거두었고, 의료, 교육, 성경 번역과 찬송가 편찬을 포함한 문서사업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관계는 주한 선교부들이 연합하여 단일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뒤이어 일어났던 한국교회 부흥과 급속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신내리 89f). 또한 초기 IMC(국제선교협의회)의 순수한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정신은 복음적이었으나, WCC와 통합된 후 본래의 목적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완수를 위해서 하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연합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되므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 재산소유권 때문에 불신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교회쟁탈전을 벌이는 것이나, 총회에 경찰이 출동하여 난장판이 되는 등의 모습을 더 이상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영혼구원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이 아니라, 교회연합을 수단을 삼아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여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므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론은 목적에 부응하는 교회갱신을 시작으로, 교회의 사회화, 세속화, 나중에는 폭력까지 용납하는 교회의 정치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

WCC를 지탱한 주춧돌 역할을 한 해방신학은 특정한 원리를 보편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고, 전통적인 신학을 거부하며 마르크스 사회분석법 등을 채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WCC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교회 자체로서는 순수하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는 반감을 사기조차 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하나되도록 기도하신 내용과는 먼 활동들을 감행했다.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연합정신은 칼빈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교회분열을 죄로 여길만큼 철저하게 교회연합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다른 이유 때문에 분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에 일치한다면 다른 문제에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교회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반탈 교수는 믿음 안에서 일치라는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즘을 강조했다.

그 동안 우리는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판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원리를 제시하고 이 근본적인 원리 하에서 교회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의 통일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며, 이것은 모든 신자를 그 회원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적인 통일성이다. 이 내적 통일은 "신앙고백과 행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며 같은 예배에 참여함에서 얻게 된다"(Berkhof 17).

교회연합운동에 있어서 외적 연합은 반드시 그 실재하는 내적 통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은 내적 통일성이 없는 외적 연합을 만들고자 하므로 "본래의 불일치를 통일해 보려는 인위적인 집합체 속에 당과 싸움이 없으리라는 것을 전혀 보증할 수 없다"(Berkhof 47f)는 사실을 잊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킬 수 없으며, 진리 안에서의 통일이 아니면 참된 통일(Unity)이 아니며 다만 일치(Uniformity)일 뿐이다. 그것은 교회를 사업적인 관점에서 능률적으로 만들겠지만, 교회의 참된 영적 능률을 올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원리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가 되고 난 후,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졸속한 연합이나 강제된 연합은 진정으로 하나되게 하지 못한다. 고신측과

222 고신연구 2002년

합동측의 졸속한 합동은 3년 만에 단절되고 말았다. 양측 이사 수나 합동으로 인한 강력한 조직력 등만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연합은 WCC나 ICC나 NAE 같은 외국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없고, 한국교회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신내리 90).

한국의 유명한 교회사가였던, 고 백 락준 박사는 이미 오래 전에 김 양선 목사가 저술한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 교회의 10년 역사에도 통일보다 분열이 있었고, 협조보다 대립이 있었던 것은 감추지 못할 사실이다....그러나 국토와 민족의 통일은 반드시 있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통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바이다. 오늘의 대립과 분열은 한 가지 과도적 현상이요 우리 교회 안에 영속할 특수성이라고 믿지 아니한다. 나는 해방 10년사의 주류에서 표면적 분열의 底府에는 통일이 있고 전면적 대립의 배후에는 협조가 있고 冷酷한 立論 안에는 공정한 諒解가 있음을 발견코자 한다(김 양선 29f).

끝으로 교회연합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되새기고자 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참고문헌

- 김 린서. "총회 분립문제에 대하여." 『김 린서 저작전집』 Ⅱ권. 정 인영 편. 서울: 신망애사, 1976.
- 김 명혁. 『현대교회의 동향-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김 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 민 경배.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그 이후의 정통 이단의 문제." 『김성식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8.
- 민 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a.



- 민 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0b.
- 박 종철. "고려파의 정신사," 『이 근삼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1984.
- 박 종철. "고려파 태동의 바른 이해-민 경배, 김 영재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신대학보』 제 88호, 1984. 5. 28.
- 백 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797.
- 신 내리. "한국개신교연합운동." II, 『신학지남』 1975년 가을호.
『신앙생활』 1936년 11월호.
- 양 낙홍. "교회의 일치와 분열에 대한 칼빈의 견해: 한국 장로교회에 대한 그것의 함의," 『개혁신학과 교회』 제 6권.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 이 근삼. "한국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정착화," 『논문집』 제 7집. 고신대학교, 1979.
- 이 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78.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71.
- 장 희근. 『한국장로교회사』 부산: 아성출판사, 1970.
- 전 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1.
- 정 두영. "한국장로교회의 화합과 일치," 『고신대신문』 제 62호. 1981년 8월 24일자.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편역. 『에큐메닉스』 서울: 성광문화사, 1992.
「호소문」 칼빈주의 신학전지를 염원하는 총신생 일동. 1978. 11.
- 홍 치모. "Calvin과 Ecumenism," 『신학지남』 제 44권 4집. 총신대학교, p. 30.
- 듀엘, 웨슬레이 L. "기독교의 일치: 성경적인 기초와 실제적인 발전," 『에큐메닉스』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편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리, 윌트니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왕 중생 역. 서울: 한국복음서원, 1978.
- 바이엘하우스, P. 『선교정책원론-인간화냐 복음화냐?-』 김 남식 역. 한국성서 협회, 1976.
- 반틸, 코르넬리우스. "개혁신앙과 에큐메니즘," 『에큐메닉스』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편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케인, J. 허버트. 『기독교 선교이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Aulen, G. 『조직신학개론』 김 관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Berkhof, L. 『교회론』 신 복운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Kuiper, R. B.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이 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



224 교신연구 2002년

- 사, 1982.
- Miller, Donald G.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 상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Augustine. *Against the Letter of Parmen anus*.
- Balchin, J. F.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Church*. Illinois: Tyndale House, 1979.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 Calvin, J. *Commentary on the Psalms*. vol. IV. Ps. 113:7. Grand Rapids, 1949.
- Deissmann, A. *Paul: A Study in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7.
- Fitzmyer, J. A. *Pauline The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1967.
- Glassar, A. "What has been the Evangelical Stance, New Delhi to Uppsala?," *Ecumenical Mission Quarterly*. Spring 1969.
- Kung, H. *The Church*. trans. Ray and Rosaleen Ockenden. London: Search Press, 1971.
- Ladd, G. 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1974.
- Locher, Gottfried W. *Calvin: Anwalt der Ökumene*. Zollikon: Evangelischer Verlag, 1960.
- Marty, Martin E. *Church Unity and Church Miss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4.
- McNeil J. T. and Nichols J. H. *Ecumenical Testimon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Reid, W. S. "Ecumenism of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 I. 1948.
- Ridderbos, H.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 Rouse, Ruth and Neill, Stephen.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8.
- Van Engen, Charles.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 Amsterdam: Rodopi, 1981.
- Walvoord, J. E. *The Church in Prophecy*.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Welch, L. *The Reality of the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WCC 에큐메니칼 운동
- 매카이, 존. 『에큐메닉스』 민 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이 장식. 『현대교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 이 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전 호진. "현대교회론과 선교사상," 『논문집』 제 7집. 고신대학교, 1979.
- 전 호진. "현대선교신학의 동향과 급진주의 선교사상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제 10집. 고신대학교, 1982.
- 몰트만, J. 『신학의 미래』 I. 서울: 향린사, 1970.
- 베르카일, 요하네스. 『현대선교신학개론』 최 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윌리엄스, 콜린. 『교회』 이 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커크, 안드류.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해방신학』 전 호진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Brunner, Emil. *The misunderstanding of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 Clowney, E. P. *The Doctrine of the Churc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76.
- Gundry, Stanley N. and Johnson, A. F. *Tensions in Contemporary Theology*. Chicago: Moody Press, 1976.
- Kee, Alistair, ed. *A Reader in Political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Kung, Hans. *The Church*. Garden, N.Y.: A Division of Doubleday and Company, 1976.
- Mackay, John A. *A Preface to Christian Theolog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1.
- Marquadt. "Socialism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Karl Barth and Radical Politics*. Paton, David M. ed.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6.
-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onciliar-Evangelical Debate: The Crucial Documents, 1964-1976*.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8.
- Neill, Stephen.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onciliar-Evangelical Debate: The Crucial Documents, 1964-1976*.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8.
- Paton, David M. ed..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Grand Rapids: Wm. B.



226 개혁주의 2002년

Eerdmans, 1976.

Paul, Robert S. *The Church in Search of Its Self*.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29.

The Madras Report I. The growing Church. New York: Fleming Revell, 1939.

Van Den Berg, Johannes. "Constrained by Jesus' Love." Doctoral Dissertation. Theologische Hogeschool and the Johannes Calvijn Academie at Kampen, 1956.

Van Engen, Charles.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 Amsterdam: Rodopi, 1981.

Visser't Hooft, W. A. ed. *The New Delhi Report: The Thir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1*. London: SCM Press. 1962.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